

조계종 개혁 10년을 말한다

2004년은 94년 조계종 개혁 불사 10년째 되는 해다. 그간 개혁불사는 어떤 열매를 수확했고 어떤 결실이 여물고 있는가? 또 반성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94년 당시 개혁의 주체세력이었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 의장 청화 스님과 정병조 교수(동국대 윤리문화학과), 성태용 교수(건국대 철학과)가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봤다. 이 자리에서는 크게 △94년 조계종 개혁 무엇을 남겼나 △한국불교의 과제(중앙집권적 불교조직, 출 · 재가 문제, 수행체계, 신도조직) △21세기 한국불교 비전(다원화 사회에서 사회적응, 사찰의 수행문화 공간화, 전통과 계승의 혁신문제) 세 부분으로 나눠 회고와 반성, 대안을 모색했다.

2004 · 갑신년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바쁘게 달려 왔지만 아직 '할 일' 많다

현황과 과제 그리고 비전



◇조계종 개혁 10년 좌담회에 참석한 청화 스님(중앙) 성태용(왼쪽) 정병조(오른쪽) 교수. 사진= 박재완 기자

좌 담

- 참가자: 청화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 의장)
  정병조 교수(동국대 윤리문화학과)
  성태용 교수(건국대 철학과)
- 사 회: 김원우(본사 취재부 차장)
- 일 시: 2003 12월 8일
- 장 소: 본사 사랑방

▲1994년 조계종 개혁이 과연 무엇을 남겼는지 먼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은 고쳐나가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방향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 해봤으면 합니다.

성태용= 개혁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뜻이 조금씩 반영됐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긍정적 측면입니다. 개혁 와중에 재가자들의 참여 기회가 열리고, 총무원 운영이 민주화됐습니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근본적인 구조자체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94년 당시, 의지는 강렬했지만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대감이 상실됐습니다. 여기에는 개혁세력이 종단 내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비판할 수 없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 승가 사회에 '바꾸자'는 의지가 없어지고, 개혁에너지가 사그라졌습니다.

정병조= 조계종 개혁은 모든 불교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다변화된 시대에 맞게 내면과 외면 양면 모두 개혁돼야 하지만 외면만 개혁됐습니다. 94년 개혁불사는 한국불교 천육백년 역사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종헌 · 종법 개정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이뤄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좌초한 것도 현실입니다.

청화 스님= 개혁입법 중 가장 긍정적인 것은 겸직을 금하는 조항입니다. 개혁 이전에는 총무원장이 종회의장도 하고, 교구본사 주지들이 종회의원도 하는 등 종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전혀 못했습니다. 즉 비판 세력이 없어 종단이 무기력했던 것이지요. 또 하나는 총무원과 포교원, 교육원으로의 삼원체제가 이뤄진 점입니다. 예전에는 포교원과 교육원이 독립되지 않아, 적은 인력과 예산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단을 이끄는 견인차라 할 수 있는 종회의원, 본사 주지 등 종무일선에 나선 분들이 상당히 젊어졌다는 것도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재가자 참여 늘고 종무행정 체계화
개혁입법중 겸직금지 가장 긍정적
종회의원 · 본사주지 연령층 젊어져

▲조계종 개혁의 부작용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병조= 부정적인 측면을 짚어보면 개혁의 미진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혁의 부정적인 면 중 한 가지는 다른 분중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입니다. 개혁을 하다보면 저항세력과 부딪치게 됩니다. 여기서 저항세력은 폭넓게 봐서 수구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구기득권 세력들이 개혁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총무원장 스님을 대상으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같은 세속법에 의지해 분쟁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종도들이 개혁에 대해 무관심한 것입니다. 종단 문제에 나서면 안 된다는 겸손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방관이자 방조입니다.

청화 스님= 우리들이 처음 개혁의 깃발을 내세웠을 때 주된 목적은 총체적으로 사회적 신뢰 및 시대적 여망에 부흥하는 종단, 한점 부끄럼 없는 종단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사명감이 결여되면서 기존 종단의 구태의연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문중이라는 거대한 성곽 속에서 보호받고 살다보니, 당대 현실을 직관하는 안목이 없고 주관이나 의식,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중들이 교구본사를 사유화하다보니, 종단이 이념이나 진보적인 사고에 따라 시대적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틀에 갇혀버렸습니다. 중앙 행정적 측면이외에도 종단은 종단의 아성 속에서만 존재하고 문중과 본사는 따로 놀았습니다.

기득권층 배타적 · 종도 무관심 문제점
총무원-교구본사 관계 재설정 필요
비구니스님 결집할만한 본사 없어

성태용= 일전에 조계종 총무원 예산 편성을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어서였습니다. 한국불교가 성장하기 위해선 중앙으로 결집돼야 합니다. 교구본사 나름대로 특징 갖춰가면서 중앙에 힘이 실려야 합니다. 또 출가공동체가 우리의 모델이라 생각할 때, 비구니스님 위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녀평등문제를 놓고 볼 때, 재가가 승가를 모두 본받기에는 승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비구니스님을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비구니 문제를 통해 계율을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논의해 봐야합니다.

정병조= 교구본사와 총무원간의 합리적인 관계가 설정돼야 합니다. 현 교구본사 체제는 1911년 조선사찰령이 발표되면서 일본인들이 소유권을 몰수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현 교구본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삼분의 일을 차지하는 서울에 본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불교 스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구니 스님들이 결집할 본사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본사와 말사의 사격이 현저하게 뒤바뀐 것도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도들의 의견의 구한 뒤 구체적으로 논의해 현행 골격 유지한 채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무원이 지금과 같이 분담금에 의존해서 행정을 집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연스레 한국 불교 현황으로 넘어 왔습니다. 평가 보다 중요한 것이 과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종단의 현황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 및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청화 스님= 종단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고 단단히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제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제도라는 것이 아무리 엉성해도 사람들이 운영만 잘하면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순기능 보다 역기능으로 흘러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총무원장 직선제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으로 흘러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바람직한 대안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의 전통은 문중이 형성되면, 문중 어른들이 그 결정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문중 안에도 사분오열이 생겨 권위가 무너지고, 대중공사도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결국 수행자로서의 정신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방법이건 간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병조= 2002년 한국종교인구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대략 불자가 1천 2십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종교 인구중 불자 숫자가 1위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가분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즉 노년층이 사라지고 나면 제2종교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층 포교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한 한국불교를 세계화 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한국불교 세계화는 숭산 행원 스님처럼 몇몇 큰 스님들이 개인적인 원력으로 불모지를 개척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종단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승가 사회의 보수교육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승가사회 보수교육이라고 해봤자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사용처
·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용후
·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몸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배게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 마음이 편안한 향낭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맥각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광물질의 힘이 담긴 향 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낭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氣"이며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제품속에 행운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차량용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가정용

제조원 Mountain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타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현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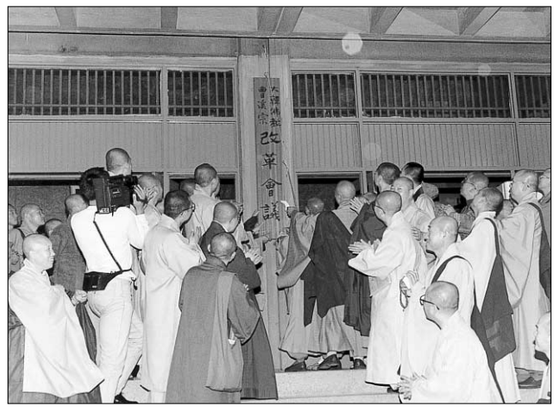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1334-9490, 334-9491 야간 : 0311706-3060





◇조계종은 94년 개혁불사의 기치를 올린 이래 10년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사진 위는 94년 개혁회의 현판식이며 아래는 이번달 완공될 역사문화 기념관.

일년에 한번 정도 본사 주지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교육 정도입니다. 조계종이 살길은 역량 있고 상식적이며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스님들이 많이 나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계고시 등의 실시가 시급합니다.

성태용=서울 불광사가 회계감사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찰 운영 자체의 변화 조짐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에게 사회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영역 등은 신도들의 몫입니다. 다만 시줏돈이 부처님 법에 따라 여법하게 쓰여졌는지 등을 물을 권리가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찰 재정 투명화 운동 등 변화 바람이 외부에 의해 강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야지 타의로 발생되면 승가 사회의 권위는 사라지고 맙니다.

▲재가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종단이 출가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그런 면이 강한데요, 재가자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씩 해주십시요.

성태용= 재가불교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귀감으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스님들이 장례치를 걱정을 하니 '신앙심 깊은 재가불자들이 여법하게 치러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즉 스님들은 수행하고 재가불자는 그 밖의 것을 하라는 역할을 부처님께서 정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가자들은 재가자가 해야 할 일을 스님들에게 넘기고, 스님이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가자는 출·재가자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해, 자기 위상을 찾아야 합니다. 또 재가자는 스님들의 승가공동체, 청정공동체를 본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은 청정한 모습으로 재가자가 나아가야 할 큰 길을 제시해 주면됩니다.

청화 스님=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소승불교를 지향하는 기형적인 모습입니다. 대승불교 주체는 재가불자 입니다. 그런데 재가 불자들의 각성이 크게 일지 못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지금의 재가불자는 전적으로 스님과 종단에 의지해 무언가를 해주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재가불자의 기본 토양이 되는 종단과 스님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겠지만, 재가 불자들도 먼저 자각해야 합니다. 재가불자들의 창의력이 불교 발전 동력으로 창출되지 못하고, 스님들은 재가불자를 지도할만한 지도역량이 충분치 않습니다. 상호간에 보충해야 할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기업가는 불교정신에 입각해 기업을 경영하고 일반 사회인들은 불교적으로 사고하고 불교를 삶의 철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1천 6백년의 역사와 민족의 삶, 사회사상, 체감 불교가 서로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합니다.

정병조= 일부의 재가단체 또는 재가자들이 종회에 의석을 요구하거나 종단 운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수를 뽑는데 관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찰재정 공개는 승가와 재가 신도들의 화합과 협력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재가위상과는 관련 없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이 다변화된 사회 상황에서 재가자들보다 전문지식이 뒤떨어진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때문에 불교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 이윤보다 불교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재가자들을 발굴 육성해야 합니다. 출가와 재가는 서로 주권을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 스님들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신도들에게 군림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됩니다. 보다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스님들은 오직 신도회 활성화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또 개인적인 복 보다 사회적인 복을 비는 쪽으로 재가자들을 고양시켜야 합니다.

▲수행체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근간을 이뤄온 '간화선의 위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병조= 현재 재가신도들의 입장에서 간화선은 문제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시대, 다변화된 시대,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시대에 간화선이냐 위빠사나냐 이야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수행적인 면에서 간화선은 권장되고 지켜져야 하지만 재가자들에게 강요돼서는 안됩니다. 각자의 처지와 방편에 맞는 수행법으로 정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간화선을 폄하하거나 가치를 평가절하 해서도 안됩니다.

성태용= 간화선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불교의 특징인 간화선이나 선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불교계의 역적 같은 분위기를 풍겨왔습니다. 자칫 부처님보다 조사를 앞세운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 불교는 교(敎)라는 토대를 갖고 있지 않은데, 간화선이 선의 전부인양 논의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특히 재가불자들에게 간화선이 유일한 것인 양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 수행하는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내공을 쌓은 후, 내공이 떨어지면 다시 수행하고, 소모하고, 수행하는 것은 재가불자에게 맞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재가불자가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스님들이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화 스님= 수행방법으로 간화선을 얘기하지만, 간화선이 탑 불교는 아닙니다. 간화선은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한 방법이면서도 그 방법이 사람의 체질이나 성향에 따라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화선이 한 방법인 것은 틀림없지만, 모든 사람이 간화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멸빈자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과연 멸빈자 구제가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의견을 나눠 주십시요.

정병조= 멸빈자를 구제한다고 했을 때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돌출됩니다. 일반 사회에서 사형을 구형한 사람이라도 구제하는 지금, 원칙적으로는 체탈도첩된 사람이라도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등적인 방법으로 구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청화 스님= 소위 종단에서 징계 받은 스님들은 정화 이후 개혁 할 때마다 종단에서 양산되어 왔습니다. 종단에서 소외받은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님들은 승려로 살아온 반평생을 생각하면 암담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그 분들이 소수로 있는 현실에서, 종단은 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니 그 반발로 종단 분규 같은 것을 일으키는데, 그럴 때마다 종단화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종단이 화합되려면 토대가 구축돼야 합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징계했던 이들을 모두 사면 복권시켜야 합니다. 정치의 회오리에서 징계 받은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승려로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종단의 문호를 개방하고 이들이 종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면 종단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성태용= 어차피 정치적인 회오리 속에서 희생된 것에는 구제의 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회오리 속에서 불교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승복을 벗어 반납하는 의식을 치르고 상대는 용서하는, 양쪽의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여 사면하면, 진정한 불교적인 사면일 것이고 불교계의 화합도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골이 깊어지고 또 문제를 없애기 위해 사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한국불교가 적응하기 위한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젊은 층 포교전략, 전통의 계승을 통한 혁신문제 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조= 미래 사회에서 불교는 한국 현실로 볼 때 다종교 중 하나일 뿐입니다. 미래 사회에서 불교 평가는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불교는 진리성은 충분하지만 사회성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은 사회에 봉사하려고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재가자들이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선종을 표방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선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이미지메이킹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티베트, 일본, 태국, 중국 불교는 있지만 한국불교는 없습니다. 십년 정도만 노력하면 미국 유수 대학에서 한국불교 관계를 전공하는 사람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불교에 미쳐서 공부하는 것이 한국불교 세계화에 효과적입니다.

청화 스님=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이른바 '중생고'를 자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사명감을 자각한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시대상황에서 사회, 경제, 남북관계 등 총체적인 시대 상황 속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가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살아 있는, 생명력 있는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수행에 중점을 두면서 사회를 바로보고, 재가불자는 불교를 믿고 수행하되 불교에만 매몰되지 말고, 시대정신을 생각하고 불교 신자로서 해야 할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불교가 미래에도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로 우뚝 설수 있을 것입니다.

성태용= 한국불교가 아직 세계적 위상은 없지만 특징은 있습니다. 중국불교는 전통이 무너졌고 일본불교는 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불교는 불교전통을 갖춘 북방불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고(苦)를 불교가 해결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퇴영적으로 '물질문명에 지친 자들 이곳으로 오라'처럼, 마치 쓰레기에 뿌리는 향료처럼 불교가 자리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어렵겠지만 승속을 막론하고 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불교가 마련해 나간다면 세계적인 불교로 우뚝 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은 승가공동체를 청정공동체로서 여법하게 자리 잡고, 재가자들은 승가를 모범삼아 재가자의 공동체를 이뤄내야 합니다. 이렇게 사부대중이 제 자리를 찾을 때 불국토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 남동우·오유진 기자

출·재가는 종단의 두 바퀴 "화합해야"
불교 세계화·청년포교 관심 가질때
진정한 참회·용서로 멸빈자 사면을
자발적 사찰재정 투명화 운동 바람직
승가 모범 삼아 재가자 공동체 이뤄야

정초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좋은 책

참회·참회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워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 祈禱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일타큰스님 주변의 기도 성취 체험담 총 52편을 모았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기도를 통한 부처님의 가피를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수 있게 됩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미타신앙·미타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은 내생 뿐만아니라 현세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에서 누리는 행복, 칭명염불·오회염불·관상염불·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갑히 불교신앙의 결정판이라 자부하며, 불자들의 1독을 권합니다.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관음관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게 풀이 되어 있는 이 책은 관세음보살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바라는 분들의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지장신앙·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값 3,500원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이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 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 김현준 편역 / 값 5,000원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부록-지장보살예찬문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우룡 큰스님 지음
신국판 / 값 6,000원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영가천도의 비결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4×6판 / 값 3,500원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 자세, 방황하는 영가를 올바르게 천도하여 주변을 다스리고 복을 쌓는 방법,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